

로버트 바노이, 대선지자, 강의 24

다니엘 2장 - 사국신상과 깨뜨리는 바위의 환상

3. 다니엘 2장 & 7

장 a. 마술사/현자의 죽음과 다니엘이 계시를 받음

개요에서 세 번째는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2장은 아주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의 첫 번째 장입니다 .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다가, 지혜자들에게 해석을 구하여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원래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박사들 곧 갈대아인들이 말하되 점성술사들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말씀을 행할 사람이 없나이다 아무리 크고 강한 왕이라도 마술사나 요술사나 점성술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에게 밝힐 자가 없고 그들은 사람 중에 살지 아니하느니라’ 이로 인해 왕은 몹시 노하고 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요청했고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며 왕에게 해석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면 “ 밤에 환상 중에 그 은밀한 일이 다니엘에게 보이니라” 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십시오. 지혜와 능력은 그의 것이다.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그는 왕들을 세우고 폐위시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 그러자 그 비밀이 31-35절에서 다니엘에게 드러납니다. 그는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보신즉 거기 큰 신상이 섰는데 그 신상이 크고 눈부시며 그 모양이 두려우니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구운 진흙으로 만들었더라. 당신이 보고 계시는데, 바위 하나가 뚫려 있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들을 흔적도 없이 휩쓸어 갔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바위는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 그래서 31-35절에 꿈이 있습니다.

비.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 해석

그런 다음 2장 36-45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 이것이 그 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왕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치권과 능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으니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너희 손에 두셨느니라. 그들이 사는 곳마다 당신을 그들 모두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그 금머리입니다. 당신 뒤에는 당신보다 열등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낯으로 된 세 번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라는 철 같이 강하니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부수느니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부수는 것 같이 모든 나라를 부수고 부수리라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구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이 나라가 나뉘겠고 그러나 당신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처럼, 그 안에도 철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이 나라도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부서지리라. 그리고 당신께서 철이 구운 진흙과 섞인 것을 보신 것처럼, 철이 진흙과 섞이는 것과 같이 백성도 섞여서 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나 그 나라는 영원히 존속하리라. 이것이 산에서 나온 바위에 대한 환상의 뜻이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니 그 바위가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렸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도다 .” 그래서 해석이 있습니다.

1. 4개 왕국이 설명되는 것: 3가지 견해 이제 이 환상이나 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그 해석에 따르면 4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먼저 그 형상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다리와 발은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라 문제는 이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여기에 상징된 정치적 왕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상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그 해석에 대한 세 가지 기본 견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상의 부분은 어떤 왕국을 나타내고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1. 비판적 접근: 절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기원전 165년경)이고 큰 돌은 유대인 봉기이다. 첫 번째는 환상의 절정, 즉 큰 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판적인 견해이다. 이 접근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절정이 기원전 165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비전은 느부갓네살 이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도달할 때까지의 왕국의 계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이어지고, 11장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은 안티오쿠스에게서 구출될 유대인의 반란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를 멸망시키고 온 땅을 가득 채울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이제 비판적인 학자들은 그것이 2장의 이미지의 비전을 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역사를 묘사하고 안티오쿠스의 멸망과 온 땅을 가득 채울

왕국의 설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반란이 안티오코스를 제거했을지는 모르지만, 온 땅을 가득 채울 왕국을 세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용문의 42페이지를 살펴보세요. 이것은 NW Porteous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처음 세 문단은 46페이지에 있고 마지막 문단은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가 이 견해를 전개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왕국의 식별에 관해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대다수의 현대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왕국이 그리스 왕국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견해가 옳다는 것을 2장 자체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7장의 병행 환상과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있는 환상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책 자체의 내부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십시오.”

여기에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교회 창립에서 엄청난 사건, 즉 다니엘이 예견했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승리가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책 자체에서 말하는 내용을 공정하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용문의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증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기간에 매우 밀접하게 결정될 수 있는 날짜를 틀림없이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완성으로 인해 그 날짜가 결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정점이 그 특정 시점에 임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기대가 문자 그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직시해야 할 사실입니다.”

47페이지로 이동하면, “네 번째 왕국이 그리스라면 세 번째 왕국은 분명 페르시아임이 분명하며, 둘째 왕국은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에 존재하는 외경적인 메디아 왕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록에는 독립된 메디아 왕국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원전 612년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데 일조했던 실제 역사의 메디아 왕국은 550년 고레스가 적들을 물리치면서 페르시아 왕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역사적 실수로 여겨지는 신비롭고 당혹스러운 메디아 왕국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다니엘서와 그에 의존하는 기록들뿐이다.”

43페이지 맨 위에 . “우리는 동시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록은 신바빌로니아 왕조의 몰락과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권력을 잡은 사이에 [메디안 왕국이] 설 자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49면으로 넘어가면, “첫째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번째 왕국이 분열될 것이며 제국은 결국 붕괴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계승 왕국은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습니다. 2세기에 이르러 전자, 즉 셀레우코스 왕조는 안티오코스 3세의 승리로 기원전 198년 파네아스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경쟁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왕국은 셀레우코스의 영향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이 셀루시드 왕국을 나타내고 점토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나타낸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철과 진흙의 혼합은 나중에 언급되어야 할 두 왕가 사이의 통혼을 상징합니다. 11장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통혼은 두 가족 사이의 안정적인 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0페이지의 다음 단락, “다음 해석에서 다니엘은 이 신비한 돌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발에 이미지를 쳐서 너무 작고 가벼워 바람에 날려가는 조각더미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들의 시대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네 왕국의 왕이 아니라 네 번째 왕국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꿈에 나타난 인물의 결과이다. 즉, 넷째 나라의 형상은 왕들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누르면 안 됩니다. 연대순으로 해석이 명확하게 도입되었습니다. 꿈에서 이 돌이 기괴하게 자라는 것은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프리 웰(Jeffery Well)은 산이 지구를 가득 채우는 것이 공간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왕국의

보편성 안에 영원히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니엘 2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식입니다.

알다시피, 계승에는 외경적인 미디어 왕국이 포함됩니다. 이 왕국은 우리가 그리스 왕국에 도달하기 전에 네 왕국을 제공할 것이며, 그 다음 그리스 왕국의 맥락에서 혼합된 왕국을 제공할 것입니다. 철과 점토는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의 결혼입니다.

비.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는 파괴하는 돌이다

두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그 정점을 찾는다. 이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견해가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넷째 왕국이 아닌 셋째 왕국에 온다. 이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안티오코스가 이 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8장이나 11장에 있을 수 있지만 2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장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위치는 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가슴과 팔은 메대입니다. - 페르시아 인; 배와 허벅지는 그리스 제국이다.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들과 함께 다리와 발은 로마제국이다. 그러다가 로마제국 시대에 손대지 아니하고 조각하여 형상을 친 이 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로 당신은 인간 제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온 땅을 덮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곳의 대표는 이제영(EJ Young)이다. 45페이지 하단의 마지막 문단 옆에는 7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2장입니다. 이것은 Young의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주석가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발전에서 언급을 찾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산에서 뜨이지 아니한 돌은 사람이 예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전달되는 타격은 금속이 처음에 설명된 역순으로 금속을 쳐서 그 효과가 이전 지상의 위대함의 잔재에 앞으로 도달하지 않고 뒤로 도달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승리할 것이며, 우상으로 나타난 인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성취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는 메디아-페르시아, 그 다음은 그리스, 그 다음은 로마입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은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로마 제국에 왔고 이 제국의 초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됩니다. 큰 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하려면 이 로마 제국을 어떤 식으로든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확장해야 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시간에 관한 한 다른 제국에 비해 불균형합니다.

몇 가지 질문 그러나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니엘이 2장 35절에서 그 돌이 신상을 친 후 “큰 산을 이루었고” “온 땅에 가득 찼다” 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복음 이 전파되면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발견된다는 뜻입니까 ? 그것은 온 세상이 결국 기독교인이 되는 복음의 확산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후천년설, 즉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견해일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볼 때, 우리는 이곳 지상에 실현된 평화와 정의의 조건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지만 복음이 20세기 끝까지 전파됨에 따라 실현될 후천년설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지구.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초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영적인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복음 전파를 통해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의미로 실현될 왕국입니까? 아니면 이 성취는 첫 번째 재림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나타나야 하는가? 보세요, 그것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씨. 그리스도의 재림 - 그리스도의 재림은 파괴하는 돌이다

나는 우리가 잠시 이러한 질문을 갖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정이라고 말하는 세 번째 견해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제국의 계승은 이전 견해와 동일할

것이다. 즉, 바빌로니아,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이지만 다리와 발에 도달하면 추가 구별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지만 두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다리와 발이 있습니다. 쇠로 된 다리와 발로 된 두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점토입니다. 다리와 발 사이에 두 단계가 있고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제국의 연속을 살펴보면 바빌로니아 제국은 약 80년 동안 지속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약 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역사는 약 280년입니다. 자신의 통치는 아니었지만 헬레니즘 왕국은 기원전 50년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약 28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관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2000년 이상 연장해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긴 왕국입니다. 오늘은 어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넷째 왕국에서 다리와 발 사이에 틈이 있고, 그것은 다리의 철과 발의 철과 진흙으로 표시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것은 인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현재로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예언 중 일부가 이 해석에 대해 어느 정도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격 문제

내 생각에 공백이 있는 문제의 일부는 다니엘서에 여러 번(아마도 이 장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네 왕국이 있고 평행법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8장에는 4개가 있고 7장에는 4개가 있으며 이는 2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격을 두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섯 번째 왕국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진행하는 왕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섯 번째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원이 4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5도입니다.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문제는 7장과 2장 사이의 평행성이 너무나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7,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형상 대신에 네 짐승, 네 가지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의 질문은 넷째 왕국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개혁파 뿐만 아니라 유럽, 카톨릭 교회, 서구 사상이나 법률, NATO,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로마제국의 지속에 끌어들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2.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반대

개요의 2.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반대” 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 비판적 관점을 고수한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전에 4개의 왕국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디아 왕국을 만들어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사이에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해당 직위를 유지하면 이전 기록에 대한 부정확한

이력서를 보유하게 됩니다. 당신은 성경 본문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신성한 계시의 성격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은 그리스도의 초림이다. 로마제국은 실제로 기원전 30년경에 제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둘은 초림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로마제국 초기에 위치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오랜 후에 로마인들의 손 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 서방의 로마제국은 서기 476년에 멸망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부터 400여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동쪽에서는 그리스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점차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주변 지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서기 1453년 투르크족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부에서는 로마 제국의 잔재가 145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왕국의 두 번째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로 된 다리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것이 로마제국 초기의 그리스도의 초림과 형상을 치는 사건과 어떻게 들어맞는가?

세 번째 관점은 재림 때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처럼 보이며 간격에 대한 제안은 인위적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의 비교 및 유사점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2장의 결론에 대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장과 평행을 이루는 7장을 살펴보고 처음에는 7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 명확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를 2장과 비교하여 2장에 어떤 빛을 던질 수 있는지, 2장의 어떤 빛을 7장에 되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입견이나 시스템에 맞게 구절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2장에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두고 7장으로 이동하여 7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7이 2장에 다시 빛을 비추는지 확인하세요.

7장으로 가기 전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는 다니엘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말로니(Martin Maloney)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